

유토피아-이상에서 현실로

# 디자인 혁명을 통해 실현한 20세기 유토피아와의 만남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공간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20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제시하고자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손잡고 디자인 혁명을 일으켰다. 당시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를 소개한다. 에디터 김혜영 자료 제공 금호미술관 (02-720-5114)

금호미술관의 첫 번째 디자인 기획 전시인 <유토피아-이상에서 현실로> 전은 삶의 공간의 변화를 통해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독일에서 발생한 현대 생활 문화의 혁명에 관한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1920년대 산업 사회에서 새로운 주거 형태를 위한 실험의 장이었던 슈투트가르트 집단 주택, 현대 부엌 디자인의 효시인 프랑크푸르트 부엌, 예술과 산업의 통합을 통한 총체적인 사회 미술 운동을 추구한 바우하우스를 만나 볼 수 있다. 1차 대전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었던 독일에서는 새

로운 예술과 사회를 꿈꾸면서 20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생활 양식의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당시의 건축가 및 예술가들은 공간의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가구와 생활 용품들의 기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생각들은 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기능주의의 새로운 미학을 탄생시킨 바우하우스,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요소들을 배치하는 프랑크푸르트 부엌, 그리고 바우하우스를 둘러싼 예술가와 건축가들의 주거 프로젝트인 슈투트가르트 바이센호프 주거 단지 등을 탄생시켰다.



디자인이 꿈꾼 유토피아, **바우하우스**(Bauhaus)

전통적인 예술 산업에서 일상 용품의 새로운 미학이 탄생했던 바우하우스는 근 20년간 학교가 주축이 되어 이뤄진 디자인 운동이다. 이 운동의 창립자인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는 산업과 미술이 하나되는 종합 예술을 바탕으로 일상 용품과 가구에서부터 실내 공간, 집합 주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계 시스템에 의해 그려지는 유토피아를 꿈꿨다. 이러한 바우하우스의 새로운 기능 미학을 위한 실험은 여러 공방과 데사우의 마에스터하우스(Meisterhaus) 등을 통해 실현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우하우스의 이념과 공간, 오브제들에 대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마에스터하우스를 그대로 재현했다.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의 가구, 크리스찬 델(Cristian Dell)의 램프 등 바우하우스 시기의 오리지널 작품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당시 주거 문화의 새로운 시도들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롭다.

현대적인 부엌 디자인의 효시, 프랑크푸르트 부엌(Frankfurt Kitchen)

부엌은 가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 공간 중 하나로, 각 시대의 주거 환경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 그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1926년에 독일에서 선보인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부엌 형태로 여겨지는 불박이 싱크대와 찬장을 갖춘 부엌의 효시다.

마르가레테 쉬테-리호츠키(Margarete Schutte-Lihotzky)에 의해 디자인된 이 부엌 세트는 당시의 새로운 주거 공간의 필요성과 그 해결책을 잘 보여준다. 더욱 좁아진 동선과 압축적인 공간 사용은 주거 문화의 기능주의와 실용주의 디자인을 대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최초로 1920년대 주방 전경을 그대로 재현한다.



새로운 주거 공간을 위한 실험의 장

슈투트가르트 바이센호프

(StuttgartWeissenhofsiedlung)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능률적인 주거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대 건축가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요구됐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바이센호프 주거 단지다.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시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주택 부족을 해결하려는 주민 정착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 주거 단지는 흰 회 반죽 벽면과 평평한 지붕이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실내 공간은 매우 능률적으로 구성돼 '새로운 삶의 방식(New Ways to Live)'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전시는 20세기 초반(1919~1933년)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오브제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삶의 공간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대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는 모던 디자이너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의 궤적을 되짚어봄으로써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유토피아전은 12월 28일까지 금호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